

성경 D & A

4. 욥의 부활 사실인가?

Q: 욥19:26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이 각각 '육체 안에서'와 '육체 밖에서'로 달리 표기되었는데 그 차이를 알려주십시오.

A: 개역[25]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[26] 나의 이 가죽,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

흠정역: [25]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. [26] 내 살갓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

욥은 노아의 홍수 이후 사람,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, BC 2000년경,

욥1:1,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구약시대에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
실제 인물(겔14:14; 20; 약5:11)

까닭 없는 고난, 고난 이후의 행복, 그런데 욥기에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부활 메시지가 있다.
19장은 욥의 하소연, 23-24

욥의 부활 확신: 25-26

25절: 구속자 즉 욥의 구원자가 세상 맨 끝에 이 땅에 서신다. 메시아, 7년 환난기 이후 지상 강림,
이때에 구약성도, 환난기 성도 부활(단12:13), 천년왕국 시작,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장 통치

26절: 지금 죽어도 부활한다. 그리고 '육체 안에서' 즉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. 즉 '예수님이
하나님'

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그분을 '육체 안에서' 즉 '육체를 입고' 본다. 개역처럼 눈이 육체
밖에 있으면 유령이다. 몸의 부활이 아니다.

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. '내 주는 살아계시고', 1741년
성경이 올바라야 한다.